

올 단오절, 전통의 형식미 새 풍조로

— 젊은이들, 정서적 문화적 공감 수요 크다

올해 단오절 연휴는 전통과 추세가 새로운 형식미, 새로운 맛, 새로운 경험과 결합되면서 명절 연휴의 새로운 풍조를 불러일으켰다.

■ 새로운 형식미, 전통에 담긴 향수를 바탕으로

단오절을 맞으며 사람들은 너도나도 쑥과 창포를 문설주에 걸어놓고 향주머니나 오색 팔찌를 착용하는 등에 열을 올렸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단오 풍속이 다시 유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릴 적 단오가 되면 외할머니는 약귀를 쫓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쑥을 집에 걸어놓곤 하셨습니다.” 하남성 정주시의 2000년대생인 리몽원은 쑥향낭은 전통적 의미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고 말한다.

단오를 앞두고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꽃집 등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쑥향낭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쑥에 창포잎, 크라스페디아 등을 더해 만든 향낭 제품은 40~50 원에서 몇백원을 호가했다.

하남성 남양시 칠대촌 쑥건강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한창 쑥을 수확하고 있었다. 기지 책임자 조준익은 최근 수년간 기지에서 운반 화훼시장과 협력해 생산하는 쑥 꽃다발의 판매량이 매우 좋으며 “올해 단오 기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명절의 형식미는 젊은이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향낭, 장신구 등 상품 소비의 열풍으로 이어졌다.

절강성 의오시 국제비즈니스성의 한 매장 책임자인 장진은 “올해 오색 팔찌, 단오 붉은색 팔찌가 몇달 새 수백만개가 팔렸다.”고 말했다.

쑥주는 단오절에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다. 단오 때마다 찾아오는 쑥주의 ‘단짠 톤’은 물론, 단오의 전통 풍습을 바라보는 문화적 공감과 함께 개선화된 품질 추구는 연휴 경제에 새로운 소비 활력을 가져왔다.

100년 된 전통 브랜드인 오방재(五芳齋)도 쑥주 혁신에 합류했다. 올해는 블랙 트러플 말린 조개 계란 노란자와 쑥쭈, 방공 샌드 쑥쭈 등 새로운 맛을 선보였다.



▲ 쑥 · 창포 · 크라스페디아와 향낭으로 만들어진 단오 장식품



▲ 단오 팔찌

장사시 소비자연구원 산업연구 책임자인 황재는 “젊은 소비자들의 소비재에 대한 정서적, 문화적 공감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크다.”며 “이는 소비 시장의 성장과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 새로운 맛, 지식재산권 합작

일부 도서관과 박물관에서는 창의적인 단오 굿즈를 출시했다. 국가도서관 플래그십 스토어(旗舰店)에선 창포 풍경 장신구를, 고궁박물관

온라인 스토어에선 쑥으로 만든 건강 안마봉을 새롭게 선보였다. 최근 건강 안마봉의 월 판매량은 이미 1만개를 넘어섰다.

풍미 해인 올해, 룡과 단오 룡선이 만나면서 새로운 소비 붐이 일기도 했다. 징둥(京东)의 ‘단오절 소비 관찰’ 통계에 따르면 룡선 경기, 블루 등 장난감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한편 단오절에 건강을 주제로 한 시리즈 공략도 주목할 만하다.

남양 쑥 기업은 ‘쑥 홀 패브릭 선물 패키지’, ‘단오 제습 목욕 선물 패키지’ 등과 같은 단오절 쑥 제품 패키지를 만들었다. 남양시중의약발전센터의 주임 왕효성은 단오절 연휴 기간 남양 쑥산업 매출이 18억원에 달해 쑥산업 년간 생산액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새로운 체험, 국조(国潮) 열기

중국 룡선의 고장 광둥성 동관시

의 한 룡선 제작 공장을 방문한 학생들은 역사 이야기를 듣고 룡선의 아름다운 무늬를 직접 만져보면서 오랜 시간 역사를 이어온 룡선 문화를 마음에 담았다.

룡선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다양한 단오 행사가 잇달아 이어졌다.

동관에서는 10~30개 명소가 원스톱 관광 코스로 연계돼 민속놀이, 강·호수 투어, 수학여행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된 룡선 체험 행사를 열었다. 귀주성 도문시에서는 단오에 어울리는 복장과 고풍스러운 화장을 하고 찻살떡 초바 만들기 체험이나 쑥주 낚시 등 민속행사를 체험하기도 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한 후 사진 촬영하기, 정원 차집에서 차 마시기, 국산 제품 애용을 내세운 국조(国潮)를 테마로 한 레스토랑 방문하기... 단오의 ‘민속 명절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북경, 서안, 남경 등 유명 문화도시는 연휴 기간 중국 전통 요소와 현재 유행이 어우러진 ‘신중식(新中式) 여행’의 좋은 선택지가 되기도 하였다.

/ 신화넷

도시신책

경덕진, 세계 도자기 예술가들의 꿈의 공방

— 젊은 예술가들 경덕진에 변화의 바람



▲ 어요(御窑) 문화예술박물관

수년간 3만여명이 이곳을 찾았고 그중 외국인이 많을 땐 5,000명 이상이였다.

‘도자기 도시’로 유명한 경덕진은 2,000여년의 도자기 제조 역사, 천년이 넘는 관요(官窑) 역사, 600년이 넘는 어요(御窑) 역사를 갖고 있다. 강서성에 자리한 경덕진시는 자기(瓷器)에 의해 탄생하고 자기에 의해 흥성 일로를 달리면서 흙과 불의 융합으로 세인의 감탄을 자아내는 수많은 예술품들을 만들어냈다.

경덕진시는 단일한 수공업에 의거해 천년의 기적을 이루었다. 오늘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경덕진시는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옛 자기공장은 창의거리로 변모하고 하나 또 하나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부상하면서 이 수공업 도시는 갈수록 다원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덕진시의 한 농가를 개조한 작업실에 미국 청년 데니스가 만든 도자기 작품이 놓여있다. 올해 32세인 데니스는 한때는 삼림보호원이었는데 이곳에 온 지 8년이 된다.

“한 산업이 천년을 이어져온 것만 봐도 경덕진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수공예 도자기 제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니스는 경덕진의 엄밀한 산업사슬, 편리한 창작 활동, 낮은 원가 등 우수한 작업 환경이 자기와 같은 도자기 애호가들을 이곳에 유인시켰다고 말한다.

경덕진은 국내외 청년 도자기 애호가들의 ‘꿈의 공방’으로 되었다. 최근



▲ 자기(瓷器) 공방

지난 2013년 한국 청년 강동현은 서울과학기술대학 도자기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경덕진도자기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작업실을 차렸다. 그는 “정부에서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작업실 창업에도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밝혔다.

경덕진도자기대학은 1950년부터 전세계 60여개 국가(지역) 출신 류학생 3,000여명을 받아들였다. 경덕진 국제예술가 작업실에서는 50여개 국가에서 온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여년전, 경덕진의 10대 도자기 공장들이 하나둘씩 차례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오늘날 남은 작업장과 가마만 남은 이곳은 다시 청년 예술가들의 개성 넘치는 창작과 취업의 무대가 되었다. 젊은 예술가들이 경덕진에 변화의 바람을 새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경덕진 도읍문화발전회 부사장 황정은 “지금까지 36세 이하 청년 2만여명이 도계천 문화창의거리구역에서 창업하고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경덕진에서 창업한 예술가중 80~90년대생 비중이 각각 40%와 50%를 넘고 그중 절반 이상이 타성이나 해외에서 왔다.

한편 도자기 관련 교육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경덕진 삼보국제도예마을의 한 6층 건물, 30년간 도자기를 빚어온 점소림씨가 제자들에게 도자기 빚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온라인으로 나눔 교육도 하고 있다.

과거 도자기공들이 황실 도자기를 만들던 궁중가마 유적지 옆으로 미술관과 예술가 작업실 등이 들어섰다. 경덕진 궁중가마박물관 원장 웅언준은 “서로 다른 국적, 다른 문화 배경의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강좌나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 신화넷

역사문화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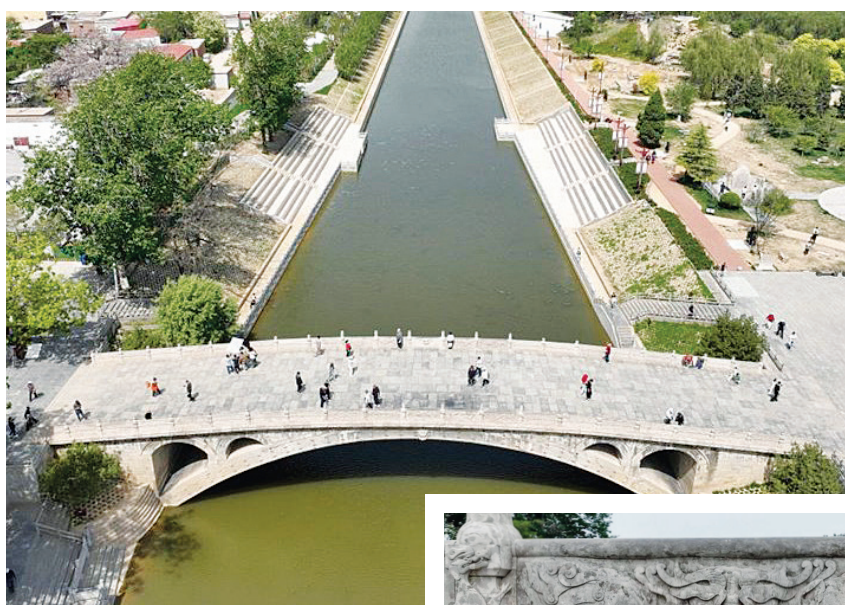
중국 제 1 아치형 돌다리 ‘조주교’

조주교(赵州桥)는 하북성 석가장시 조현의 하천 효하(洺河)에 위치한 다리로 수나라 때에 건설되어 1,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다리는 1961년에 제 1차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조주교의 전체 길이는 64.4미터로 건설후 줄곧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4년에 조주교공원이 들어서면서 사용을 중단했다.

“조주교가 천년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설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현박물관 관장 리곤홍은 “다리의 가장 큰 위험은 특대홍수다. 하지만 1963년과 1996년에 조주교 인근 하천들에 큰 홍수가 잦을 때에도 조주교는 여전히 무사했다. ‘오른 아치형’ 설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측에 각각 두개의 아치, 총 네개의 아치를 설계했는데 작은 아치는 재료 절약은 물론 다리의 무게도 줄여 홍수가 다리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조주교에는 28개의 아치 통로가 있다. 매 통로는 독립적으로 설계되



▲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주교

여 그중의 하나가 훼손되더라도 다른 통로와 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로 보수 또한 가능하다. 조주교가 1,400여년 무너지지 않은 원인에는 이러한 설계 방식이 크게 작용했는바 고대 중국인의 슬기와 지혜 그리고 혁신 정신을 엿볼 수 있다.



▲ 조주교 돌 간판에 조각된 생생한 도안들

조주교는 높은 과학적 가치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뿐 아니라 조형예술과 조각예술 분야에서도 가치가 크다. 리관장은 “풍조각은 조주교의 정수로 꼽히는데 58마리가 다리 곳곳에 새겨져있어 기세등등한 룡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주교는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다. 1991년 조주교는 미국 토목엔지니어 학회(ASCE)로부터 ‘국제 토목공학 역사 교적’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 11월, 조주교가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현재 다리 아래로는 하천이 유유히 흐르고 우로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주교에는 천년 역사가 응집되어 오늘날의 변顔を 증명하고 있다.

/ 인민넷

Z세대 사이에서 부는 복고풍 ‘신중식’

최근 새로운 중국식이라는 뜻의 ‘신중식’이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중식’은 차를 마시는 것부터 미용, 액세서리까지 여러 방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신중식’ 패션이 특히 인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우리 나라 전통 의상인 당나라 복장 벨벳 조끼, 송나라 풍의 비단 자카드(提花) 스커트, 중국 전통 매듭 단추가 달린 자수 옷 등의 판매가 급증해 ‘거리 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전통 의상이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문화 유전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국조(国潮) 열기로 가득한 서안시 대당 불야성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신중식’ 패션의 매력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정교한 매듭단추 디자인, 무형문화유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자수 공예, 매란죽국(梅兰竹菊) 문양이 만들어진 청아함... 고대인들의 장인 정신과 현대 패션이 조화를 이룬 혼합 풍격이 젊은층의 심미관을 정확하게



▲ 전통의상 입고 기념촬영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중식’ 패션이 각광받는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젊은층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국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이 아닌 ‘Z세대’ 문화와 중국 전통문화가 끊임없이 교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리면에는 깊은 애국심이 담겨있다.

/ 신화넷